

파견기간	1 쿼터 (3 개월)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2-18406
파견국가	미국		소 속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
파견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성 명	윤지우
아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6 년 1 월 24 일			
지원자*	윤지우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타지(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함 경험을 쌓아보고 싶었고, 해외 대학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UW 은 저의 1 지망 파견 대학이었습니다. 서부에 위치해 있어 동부나 내륙보다 날씨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 시애틀의 경우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이 많아서 타지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UW 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대학 순위가 나쁘지 않고 공학 쪽으로는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1) UW 지원 및 캠퍼스 배정

UW 의 경우 토플 성적이 90 점 이상이면 좋긴 하나 80 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도 5 명으로 꽤 많기 때문에 지원 경쟁률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캠퍼스는 시애틀 1 개 뿐이라서 UW 시애틀 캠퍼스에 배정됐습니다.

2) 지역 특성

시애틀의 경우 10 월 중순까지는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비도 거의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하며 기온도 최고기온 24 도 정도로 따뜻합니다. 다만 10 월 말부터는 비가 자주 오면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집니다. 비가 하루종일 오거나 퍼붓는 경우는 잘 없으나, 매일 조금씩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있었던 12 월까지도 날씨가 0 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5, 6 도 정도가 제일 추운 기온이었습니다.

시애틀 내에 있는 가장 유명한 자연환경으로는 올림픽 공원이랑 마운틴 레이니어가 있습니다. 마운틴 레이니어의 경우 UW 프로그램을 통해 갈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시애틀 내에 예쁜 호수와 공원이 많아서 최대한 많이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서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부여행 (샌프란시스코, LA, 라스베이가스, 샌디에고 등) 가기에 용이합니다.

3) 학교 특성

아시아인 인구가 많아서 돌아다니면서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모두 자주 듣게 됩니다. UW 의 경우 각 나라별 동아리와 네트워크도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저는 J1 비자를 신청했고, UW 으로부터 합격 발표를 듣고 DS-2019 를 받은 뒤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UW에서 받은 DS-2019를 이용하여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고, SEVIS fee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할 때에는 DS-2019와 여권, SEVIS 영수증, 여권 사진을 가져가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질문은 2, 3개 정도로 매우 간단했고,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그 정도였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J1 비자 인터뷰의 경우 크게 준비해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원했을 당시(25년 6월 쯤)에는 비자 인터뷰가 까다로워져서 개인 SNS를 전부 다 공개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자 신청 비용, SEVIS fee 등 비자 신청에 총 6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크게 West 캠퍼스와 North 캠퍼스, 자취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기숙사 신청의 경우 빨리 할수록 원하는 기숙사에 배정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1) West 캠퍼스

공대 건물들이 주로 west 캠퍼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대 수업을 많이 듣는다면 west 캠퍼스에서 지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 건물들도 대부분 새 것으로 시설이 좋습니다. 도미토리 형식의 경우 1인 1실, 2인 1실, 3인 1실 중 원하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고 아파트 형식의 경우 6인 6실과 4인 4실 정도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미토리가 아파트보다 거주 비용은 싼데, 밀 플랜이 필수여서 두 금액을 합치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6인 6실의 아파트 형식인 Stevens Court에서 지냈고, 기숙사 비용은 1쿼터에 4000달러 조금 넘게 냈습니다. 저는 대부분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먹어서 밀 플랜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종종 학식을 먹는 경우도 있어서 200달러나 400달러 정도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토리의 경우 3인 1실이 3000달러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요리가 불가능해서인지 밀 플랜 최소 금액이 1000달러가 넘어서 합치면 최소 4000달러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2) North 캠퍼스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영대 수업이 north 캠퍼스 근처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West 캠퍼스보다 기숙사 건물들이 오래됐고, 8인 4실 등의 방도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North 캠퍼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W에 파견된 다른 학생들의 귀국 보고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취

자취는 선택안에 없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견 기간이 1년 정도로 길다면 자취를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이득이라고 합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서울대에 지불한 등록금 이외에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Student fee와 tuition이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면제입니다. 다만, 교통비로 70달러 정도를 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을 내면 학교 학생증으로 시애틀 내의 버스와 지하철은 무료로 계속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매우 비싼 편이라 ISO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를 가입하고 wavier를 신청했습니다. 비용은 20만원보다 조금 적었는데 학교 보험에 비하면 매우 쌉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학교에 OIA 장학금과 GLP 장학금 등이 있지만, 이공계라면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장학금에 지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Citizen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교통 사고, 총격 사건 등)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UW MyPlan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교환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이 기존 학생들보다 늦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수업은 이미 정원이 다 차기도 합니다. 또한 prerequisite (선이수) 과목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UW 학과 행정실에 메일을 써서 해당 선이수 과목을 들었음을 밝히고 (저는 성적 증명서와 강의 계획서 등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수강신청 코드를 받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교환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2학점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4학점 이상이라서 3개 정도만 들어도 12학점은 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저는 3학년까지 마치고 교환학생을 간 것이라서 들을만한 UW 화학공학과 수업이 별로 없었고, 들을만한

수업의 경우 정원이 다 차거나 UW 화공과에서 재학생에게 들을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여 화공과 수업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학점 인정이 필요없는 상황인지라, 서울대에서 듣지 못하거나 평소에 관심있던 분야의 수업들 위주로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CSE 121, CSE 163, JAPAN 101

CSE 121 은 Java 기초 수업으로 Java 언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수강했습니다. CSE 163 은 파이썬 코딩 수업으로 간단한 머신러닝까지 배우는 수업입니다. JAPAN 101 은 초급 일본어 수업입니다.

알파벳 옆에 적힌 숫자가 클수록 고학년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하지만 서울대 영어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 애기와 제 경험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제나 퀴즈가 많긴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대부분 cheat sheet 를 허용하며 많은 수업들이 강의 녹화본을 제공합니다. 과제 제출 잘 하고 시험만 적당히 보면 성적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여행용 김치, 고추장, 김, 햇반 등의 한식은 가져가는데 좋습니다. 학교 근처에 H-mart 가 있어서 웬만한 물건은 다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다만 라면의 경우 미국에 반입이 불가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스킨케어나 화장품도 다 비싸서 한국에서 쓰던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시애틀이 물가가 좀 높은 편이라서 간단한 먹을 것들과 물건은 한국의 2배 정도라 생각하면 되고, 외식의 경우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팁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인당 5만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택시비가 매우 비싼 지역으로 25분 정도 타면 10만원은 그냥 나왔던 것 같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캠퍼스 근처에 식당과 은행이 많습니다. 아시안 식당도 많습니다. 의료 시설은 제가 이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잘 되어 있어서 시애틀 내에서 이동하기 용이합니다. 통신의 경우 Mint-Mobile 을 이용했습니다. 이 통신사를 이용하면 캐나다에서도 매달 2기가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여행갈 때 좋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저는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학기 중간에는 금요일이나 월요일 수업을 몇 번 빠지면 시애틀 근교를 놀러다닐 수 있고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용하면 서부여행을 길게 8일 정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애틀 바로 위에 캐나다 밴쿠버가 있어서 버스 타고 가기 좋습니다. 종강 후에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서 학기 중이 부담되면 종강 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시애틀의 경우 치안이 좋은 편이라 학교 캠퍼스 내에는 노숙자가 거의 없고 밤에 돌아다녀도 나름 안전합니다. 하지만 캠퍼스 밖 위쪽으로는 밤 늦게 노숙자가 꽤 많아 치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 늦게 시내에서 돌아오거나 나갈 일을 최소화하고, 여러 명에서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다운타운의 경우 노숙자가 많아서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고, 차이나 타운은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VI. 교환학생을 마치며

한 쿼터만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다들 학기 초반부터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시애틀 곳곳을 구경해보길 추천드립니다. 3달 조금 넘는 기간이었지만 정말 값지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